

9

2018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소식

Vol. 280

제26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2018. 9.14(금)~ 9.16(일), 양양종합운동장 일원





COVER STORY



제26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2018. 9.14(금)~ 9.16(일)



양양소식 · 280호

| 발행일 2018년 9월 1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군정소식지「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jsmj4@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양양소식

Vol. 280

CONTENTS

희망양양

- 04 기획취재 양양의 여름밤 맛있는 야(夜)시장을 즐기자
- 06 ISSUE & PEOPLE
최종원·박경애 부부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
- 08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
양양 성황제는 국행성황제 이다

의기양양

- 10 뉴스 브리핑
 - 10 제26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 12 양양을 서문리 안봉녀 할머니,
인재육성학회에 아름다운 기부
 - 13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국토부 공모사업선정
 - 14 양양 모노골 삼림욕장 인기. 대형차량 주차공간 확충
- 15 사진으로보는 양양의 이모저모
- 16 의정소식
제8대 양양군의회 민생현장 방문

오감양양

- 18 SNS 기자단 소식 양양구룡령 옛길걷기
- 19 이게 최고자니
양양표고의 은은한 향과 쫄깃한 맛을 즐기자.
- 20 맛있는 양양여행
3대 가을버섯 서열을 바꿔 놓은 양양 송이와 송이축제를
기다리며...

열린양양

- 22 책이야기 호모데우스 / 이달의 신간
- 23 정보꾸러미 추천 일자리
- 24 알림마당 공공기관 행정정보
- 28 공익광고



마음껏 골라먹고, 신나게 체험하고, 낭만은 덤으로
양양의 여름밤 맛있는 야(夜)시장을 즐기다.

양양시장 밤의 문이 열린다.

240년 전통의 양양시장에서 여름밤의 정취를 더하는 밤장(야시장)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열렸다.

끝 날짜가 4일, 9일에 맞춰 개장되는 양양전통시장은 전국의 산해진미와 가공제품 판매상이 운집하고, 인근지역 주민들과 관광객이 사시사철 찾는 명실상부 강원 영북지역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이다.

다소 아쉬운 부분은 5일 장날 외에는 양양읍 시가지와 시장거리가 한산하고,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관광객을 전통시장으로 유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끌 수 있을 만한 관광소재가 부재했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양양군이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양양전통시장 아케이드 및 공연장 일원에서 '양양 맛있는 야(夜)시장'을 시범운영하였다.





夜! 신난다. 야(夜)시장에서 여름 밤 열대야를 즐긴다.

이번 야시장은 무더운 여름밤, 방문객의 발길을 이끌어 문전성시를 이뤘다.

즉석 먹거리, 공예 및 체험 등 26개 셀러가 동참하고, 지역의 재능 있는 주민들의 문화공연이 어우러진 야시장에서 마음껏 골라먹고, 체험하고, 공연을 감상하는 낭만은 덤으로 느낄 수 있는 복합적인 문화공간이었다.

핫도그 등 즉석 먹거리를 구입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섰으며, 입맛에 맞는 먹거리 구입 후 준비되어 있는 테이블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여름밤을 즐길 수도 있었다. 대부분의 셀러들은 준비해온 재료를 조기에 소진해 완판을 기록했으며, 제철을 맞은 양양 복숭아 판매부스와 체험부스에도 방문객이 줄을 이었다.

특히 양양전통시장~낙산해변 간 셔틀버스를 타고 외부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평소 오후 8시면 60여개 점포 대부분이 문을 닫았던 전통시장 상점들이 이번 야시장 개장 기간에는 절반 가까이 밤 10시까지 개점해 활기를 띠며 무더운 여름밤 상인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피었다.

소소하지만 시시하지 않은 양양의 맛있는 야(夜)시장

양양전통시장 아케이트내에서 운영된 소소한 먹거리와 체험거리 문화공연은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시하지 않은 시간을 선물해주었다. 특히 낙산, 하조대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와 시내 곳곳에 포스터 게시 및 SNS 이벤트로 적극 홍보한 결과, 평소 인스타그램에 600여개 노출되었던 '#양양전통시장' 해시태그가 야시장 개장기간 동안 두배 이상 늘어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번 '양양 맛있는 야(夜)시장'은 젊은층을 겨냥한 새로운 먹거리와 문화공연,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야간에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다는 양양시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가 됐으며, 해수욕장, 계곡 등에 흩어져 있던 피서 관광객을 양양을 중심으로 유인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 창출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거두었다.

극한 무더위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야시장 운영에 동참한 공연팀과 셀러들의 노력이 돋보이는 이번야시장은 야간 관광마켓의 성공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줌에 따라 정례적인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의 양양의 맛있는 야시장의 성장이 더욱 기대가 된다.

〈글·사진 : 편집부〉



ISSUE & PEOPLE -최종원·박경애 부부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



양양군 농업의 선구자 최종원 박경애 부부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

각박한 도시생활을 벗어나 농업인을 꿈꾸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인간의 수명이 100세를 바라보는 지금, 귀농을 통해 유유자적 하던 삶 대신 남은 인생을 설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농업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평생 농업에 종사하면서 양양의 농업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최종원 박경애씨부부를 만났다.

1981년 23살의 젊은 나이에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최종원·박경애씨 부부는 축산업을 시작으로 영농에 본격적으로 종사하였다. 2012년 소값 파동으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역 영농 여건을 분석하여 새로운 방법의 영농을 시도한 결과 복합영농을 선택하게 되었다. 당시 양양에서는 생소하기만 했던 하우스 시설을 통해 농산물을 재배하여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수도작 규모를 늘리면서 목돈 마련이 가능한 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 현재와 같은 영농 규모와 농가 소득을 올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기농업, 자연농업, 기계화, 농산물규격화, 전자상거래 등 스스로 선진 농업기술 및 농산물 유통개선 노하우를 습득하고 더 나아가 영농회 및 작목반에 전수하는 등 지역 농업 발전에도 꾸준히 참여하였다.

최종원·박경애씨 부부는 지난 8월 6일 자립·과학·협동의 새농민운동 정신에 가장 맞는 농민에게 주어지는 농협의 새농민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농촌과 농업을 지키며 노력하는 농업인

최종원·박경애씨 부부는 하우스 10동의 고품질 채소육묘, 토마토, 오이등의 시설원에는 양양군 시설원예분야의 선구자로 인정 받고 있으며, 한우까지 키워 복합영농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1차적인 재배에서 끝나지 않고 마을 개발 사업으로 과채류를 이용한 이색놀이체험을 운영, 대체 작목인 웰빙 유황채소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또한 우수작물 재배뿐만이 아닌 소비자와의 유통까지 생각하며 선진 농업기술을 도입하고 양양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양물을 통해 판매로 이어지는 유통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2018년 2월에는 양양군 최초로 육묘업에 등록하여 전문 육묘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부부는 하우스 육묘손질로 이른 아침부터 바쁜 모습이다. 하우스 안에는 보라고추, 당조고추 등 주변에서 쉽게 보지 못하는 작물들이 가득하였다. 많은 농업인이 좀 더 쉽게 고품질 고소득의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매년 새로운 육묘재배에 도전하고 있었다. “무더위가 특히 심했던 올해는 농사가 엉망이에요. 허무하기도 하지만 그 중에 열매가 맺히는걸 보면 농사의 기쁨을 느껴요.” 새로운 작물에 도전하면서 성공하는것도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고 한다. 힘들어도 농사가 재미있기에 앞으로도 계속 도전하고 연구를 하겠다는 부부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영농노하우부터 농업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배울 수 있는 멘토

최종원씨는 바쁜 일상속에서도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아 2012년에는 강원농업마스터대학 4년 과정을 졸업했으며,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 등의 교육을 이수하여 선진농업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그의 배움에 대한 노력은 개인에서 끝나지 않고 농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나눔을 하고 있다. 학포리에 위치한 최종원씨의 하우스는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양양군에서 운영하는 귀농귀촌 영농교육중 하나로 농가를 돌아보며 영농의 현실과 노하우를 지도하며 영농후계인력의 멘토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그 외 느타리 작목반, 양양과채옴마를 작목반등에서 끊임없이 소통하며 연구하고 있으며, 양양군 친환경 연구모임 강사를 통해 영농 컨설팅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양양 농업의 선구자로서 지속적인 농업기술 전파와 영농후계 인력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자랑스런 ‘이달의 새농민’ 최종원·박경애씨 부부를 응원한다.

(글·사진 : 편집부)



양양 성황제는 국행성황제(國行城隍祭)이다.



성황사 전경

성황제의 유래

- 성황제는 서낭제라고도 불리며 그 유래를 고문헌을 상고하면 5세기경 후한서(後漢書) 반표열전(班彪列傳)에 기록이 있다.
- 우리나라에는 고려 성종 15년(996년)에 성황당 기록이 고려사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 고려 고종 23년(1236년) 성황신에는 지역에 따라 작호(爵號)[國師·大皇·將軍·護國伯...]가 덧붙여졌었으나, 공민왕 17년(1370년) 각 지역의 주(州)·부(府)·현(縣)의 성황은 〇〇주·부·현성황지신(某州·府·縣城隍之神)이라 고치도록 했다. [예: 양주성황지신(襄州城隍之神)]

조선건국 후 성황제는 유교예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 태조 1년(1392년)의 사전(祀典)에 여러 주군(州郡)의 성황(城隍)은 나라의 제소(祭所)이니, 다만 〇〇주(州), 〇〇군(郡) 성황(城隍)의 신(神)이라 일컫고, 위판(位板)을 설치하여, 각기 그 고을 수령(守令)에게 매양 봄·가을에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제물(祭物)·제기(祭器)·작헌(酌獻)의 예(禮)는 한결같이 조정(朝廷)의 예제(禮制)에 의거하도록 하였다.
- 태종 13년(1413) 사전 개정안에 각관(各官)의 성황지신(城隍之神) 작호를 혁거(革去)하고, 단지 〇〇주(州)의 성황지신이라 하며 성황사 안에는 주신(主神) 1위(位)만을 남겨 두고 상설(像設)은 모두 다 철거(撤去)하라고 명시했다.
- 세종실록 『오례의(五禮儀)』와 성종 5년(1474년)에 완성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전거하여 성황제를 행한다.
이에 양양성황사의 제례는 국행성황제에 전거하여 신위판은 '양양성황지신(襄陽城隍之神)'이라야 하며 성황사 안에는 신위만을 모시고 일체의 상설(像設)은 모두 철거하여야 한다.



성황사 헌작례 모습

양양성황사는 언제 어디에 설치되었을까?

고려 목종(穆宗) 10년(1007년)에 양양에 성을 쌓았는데 348칸이고 문(門)은 4개이다. 이 성은 양양의 현산 산등성에 쌓았으며 성 안이 읍지가 되니, 성안 제일 높은 곳인 지금의 성황사 자리가 당초의 성황사 터였으리라 믿어진다.

오늘에 이르러 왜? 성황사 제례에 대하여 논해야 되는가?

이는 우리 양양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바로 잡고 고려시대 이래 관주도의 고유전통 문화를 계승시키면서 오늘날 최첨단 과학문명과 접목시켜 악진양양의 건설과 군민의 대동화합을 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에 의하여 동해신묘와 같이 훼손시켰다.

다행히 6·25한국전쟁 후 우리 양양이 자유대한의 품에 안겨 종교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나, 일제에 강점당하면서부터 50년간 까맣게 잊혀졌던 양양의 성황제에 대하여, 복구당시 관에서 무관심한 틈을 타, 무속에 의해서 주민 주도의 민간성황제로 변형 오늘에 이르렀으므로 이제 바로 잡아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 때문에 양양성황사의 성황제는 국가제사이므로 국행성황제(國行城隍祭)로 환원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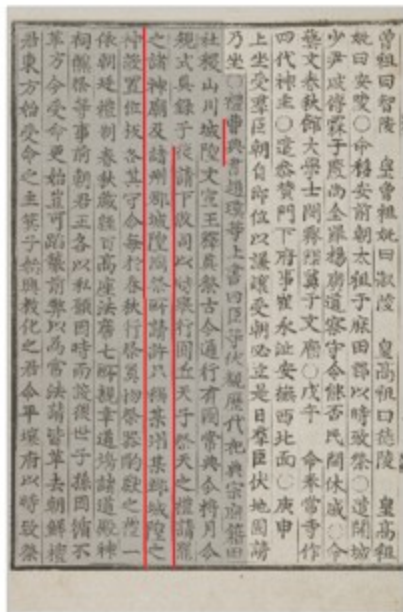
■ 고려 말 안향(安珦)이 상주판관(尙州判官)이 되어 무녀에게 곤장을 치고 칼을 씌워 옥중에 가두어 놓자, 도리어 무녀들은 용서를 구하였고,

■ 양양 조산리 강릉최씨의 중시조 최정립(崔挺立)선생이 1599년 사천리 웅이동에 있었다는 요신(妖神)의 사당인 도적음사(道積淫祠)를 헐어버림으로써 미신의 허구를 일깨운 위인이 있었으며 이후 주민은 안녕을 기할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글·사진 : 양양문화원〉



제례 장면



조선왕조실록

제26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9.14(금)~9.16(일) 18개 시군 선수단 7,811명 참가, 24개 종목 열전

9.14(금) 오후 5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개막행사에서 만나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제26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가 우리군에서 개최된다. 9월 14일 양양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6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도내 18개 시·군 7,811명의 생활체육인(선수 5,942, 임원 1,869)이 화합과 열정의 무대를 선보인다.

9월 14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는 개막행사는 식전행사(5~6시)와 개회식(6시~7시), 식후행사(7시~8시)로 진행된다.

식전행사는 주경기장인 양양종합운동장 한가운데 공항 관제탑과 활주로 디자인을 모티브로한 양양타워 멀티스테이지를 만들어 하늘로 향하는 꿈길 '숫아래 양양'을 주제로 '숨이 인라인

퍼포먼스'와 '양양서퍼 및 생활체육인 자전거 퍼레이드', '아크로바틱 치어리더 레인보우', '양양의 역사를 주제로 한 무용공연'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개회식에서는 18개 시군 선수단이 입장하고 강원도체육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양양군수의 환영사, 강원도체육회장의 대회사 등이 진행되며 생활체육 동호인 대표 2명이 생활속에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한 사회를 이루자는 '스포츠 7330 실천 다짐 선서'를 통해 이번 양양군에서 열리는 도민생활체육대회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이후 개최되는 식후행사에서는 전문MC의 진행으로 설운도, 신지, 양혜승 등 인기가수의 축하공연과 불꽃쇼가 개최된다.

개막식 행사장 임시주차장 확보, 경기시설 보수 등 성공개최 준비에 구슬땀

제26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를 앞두고 우리군에서도 막바지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군은 개막행사 등에 교통혼잡이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종합경기장 정·후문 주차장(300대) 외에 종합운동장 인근 토지에 임시주차장 2개소를 조성해 대형버스 등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둔치야구장 락커룸과 전광판, 축구장 롤링작업, 궁도장 조명탑 이설 등 15개 경기장의 시설 일부를 보수했으며, 주요 경기시설에 이동식 모바일화장실과 재활용분리수거대 등을 설치해 선수단 및 관람객 편의를 도모했다.

이밖에도 손님맞이를 위해 숙박업소 251개소, 식품접객업소 809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 및 친절교육을 진행하고 있으

며, 경기장 주변과 도로변 녹지대를 새로 정비하고 주요 진입로에 꽃정원 등을 조성해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생활체육대회에서는 육상, 수영, 축구, 야구, 테니스, 농구, 배구 등 22개 정식종목과 태권도, 그라운드골프 등 2개 시범종목이 치러진다. 육상, 수영, 배구, 테니스, 궁도 등 19개 종목은 양양군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며, 축구와 야구 등 2개 종목은 경기시간이 비교적 길고, 다수 경기장이 필요한 만큼 인근지역인 속초시와 일부 분산 개최할 예정이다.

볼링과 사격, 패러글라이딩 등 3개 종목은 양양군에 강릉와 평창, 횡성 등에서 개최한다.

문의 문화관광과 대회운영담당 033-670-2605



제26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종목별 경기일정

종 목	경기종별	일 시			경기장명	비고
		9.14.(금)	9.15.(토)	9.16.(일)		
육 상	트랙		09:30~11:30		양양종합운동장	
	마라톤(5km,10km)			08:00~11:00		
수 영	자유형·배영·평영·접영, 단체전		10:00~17:00	09:30~14:00	문화복지회관 수영장	
축 구	40대부	결승 예선		13:00~15:20	양양종합운동장	
	50대부		15:00~18:00	10:00~18:00 10:00~15:20	양양고, 둔치잔디축구장, 속초종합(보조)-공설운동장	
야 구	일반부 (3부 단체전)	08:00~18:00	09:00~17:00	09:00~14:00	양양 둔치 야구장	
		08:00~18:00			속초 설악 야구장	
테니스	남자 (오픈, 챌린저, 신인, 이순부) 여자 (오픈, 챌린저, 신인부) 혼합복식부		09:00~18:00	09:00~15:00	양양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양양해오름 테니스장	
농 구	일반부		10:00~17:30	09:00~15:40	상평초등학교 체육관	
배 구	남자부		09:00~19:00	09:00~16:00	양양여고, 양양초교 체육관	
	여자부		09:00~19:00	09:00~16:00	손양초교 체육관	
탁 구	남·여 3개부, 혼합복식, 단체전		14:00~18:30	09:00~15:00	양양군국민체육센터	
자전거	도 로		10:00~16:30		양양사이클경기장 일원	
	MTB			10:00~12:00		
검 도	청·장·중·노년, 여자부		09:00~16:00	09:00~14:30	인구초교 체육관	
궁 도	중년부, 장년부		09:00~17:00	09:00~16:00	현산정	
사 격	트랩, 스킵트 아메리칸트랩	08:30~17:00	08:30~17:00	08:30~16:00	황성 스포랜드	
배드민턴	남자·여자·혼합 (30,40,50대)		13:00~17:00	10:00~15:00	양양실내체육관	
볼 링	중·장년부(혼성 5인조)		10:00~18:00	10:00~14:00	강릉강남볼링센터	
			10:00~18:00	10:00~14:00	뉴그랜드볼링센터	
보디빌딩	남·여(청장년, 중년부) 포즈, 단체전		09:30~17:00	09:30~15:30	강원외국어교육원	
체조(생활체조)	단체전		09:00~14:30		조산초교 체육관	
게이트볼	남자부, 여자부, 혼성부		09:00~17:00	09:00~16:00	양양공항구장	
국학기공	단체전, 개인전		10:00~15:00		문화복지회관 대강당	
족 구	1부, 2부, 40대, 50대, 드림부		08:30~16:00	08:30~15:00	현북축구장	
패 러 글라이딩	연습조종사, 조종사 단체전		10:00~18:00	09:00~14:00	평창 해피700 활공장	
풋 살	30대부, 40대부		10:00~15:00	10:00~14:00	양양초교 운동장	
바둑	15명 단체전		13:00~17:30	09:30~11:30	강현중학교 체육관	
태권도(시범)	겨루기, 품새		09:00~16:00		광정초교 체육관	
그라운드골프 (시범)	단체전, 개인전		09:00~15:00		강현중학교 운동장	

양양읍 서문리 안봉녀 할머니, 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에 아름다운 기부

지역인재 육성 위해 양양읍 임천리 토지 616㎡ 무상 기증



양양읍 서문리에 거주하는 70대 안봉녀 할머니가 후학 양성에 힘써달라며 시가 1억원 상당의 토지를 양양군에 기부했다. 지난 8월 16일, 군수 집무실에서는 기부자인 안봉녀 할머니와 아들 박용일氏, 며느리 전희경氏,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인 김진하 군수 등 관계자가 함께한 가운데 토지 기증식이 개최됐다.

안봉녀 할머니는 1940년생으로 한창 교육을 받을 나이에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한 평생을 아쉬움에 살아왔으며, 이로 인해 후학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2년 전 생사고락을 함께해 온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조그마한 농지를 안 할머니 앞으로 남기게 되었으며, 배우자인故박공병 할아버지가 유언과 함께 할머니가 더 늦기 전에 좋은 일에 쓰고 싶다는 양양군을 찾아와 기부 의사를 밝혔다. 안 할머니 슬하의 3남 2녀의 자식들도 어머니의 남다른 결심과 선의에 뜻을 같이하면서 이날 토지 기증식을 가지게 되었다.

기부토지는 44번국도 진입로 인근에 위치한 양양읍 임천리 405-3번지 616㎡로 공시지가가 4,047만원 상당의 논(畓)이다.

최근 양양지역 토지가 공시지가의 2~3배로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1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군은 농지법 제6조 제1항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양양군에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직접 매입한 후 기부자가 매각대금을 장학회에 기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은 지난 2013년 장학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향토장학기금을 폐지하고 통합 인재육성장학회를 출범해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장학기금 조성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출범 당시 33억 3천만원으로 시작한 인재육성기금은 양양군의 정기 출연금과 함께 개인·단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면서 2018년 7월 기준으로 누적액이 66억원을 돌파했다.

군은 장학기금의 안정적인 확보와 범군민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장학기금 운용의 취지와 필요성을 기관·사회단체와 기업체 등에 적극 홍보해 나가는 한편 군민과 출향민을 대상으로 '1인 1구좌 갖기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사무국장 033-670-2767

C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2021년까지 국비 20억원 확보, 서핑테마거리·볼파크 공원 등 조성

우리군이 현남 죽도해변 일원에 추진 예정인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형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은 서핑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죽도해변을 중심으로 서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과 체험 인프라, 볼거리·먹거리를 확충하고, 향토자원과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해 현남면 죽도해변에 서퍼와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고, 서핑을 소재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운영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서핑숍과 게스트하우스, 상가 등이 집중돼 극심한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죽도해변 인구중앙길 일대에 서핑 테마거리를 조성한다. 보드를 들고 이동하는 서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도보길을 확장하고, 서핑보드 세척공간과 공동 거치대, 서핑 조형물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전망대를 시설한 죽도정 일원에는 900m 길이의 둘레길을 만들어 해안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힐링공간을 창출하고, 둘레길과 연결되는 인구항에는 자연산 활어판매장을 새롭게 조성해 주민 소득창출로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날씨·계절에 제한 없이 상시적으로 서핑체험 및 교육이 가능하도록 1,000㎡ 규모의 볼파크 공원을 조성하고, 그늘막·파고라·쉼터 등을 만들어 서퍼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리마켓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033-670-2101

C 2018 양양송이·연어축제 행사장 규모 확대

'송이', '연어(연아)' 이름을 가진 사람, 송이 보물찾기와 연어 맨손잡기 무료 이벤트

양양군축제위원회(위원장 김우섭)가 지난 8월 23일 양양지역 대표축제인 송이·연어축제의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양양송이축제는 9월 28일 산신제를 시작으로 10월 1일까지 남대천둔치와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송이산지 일원에서 4일간 진행된다.

양양송이축제의 대표 체험프로그램인 '송이보물찾기'와 '송이 채취 현장체험', '표고버섯따기체험'은 인터넷 사전예약과 현장접수를 통해 1일 2차례 운영한다.

이밖에도 탁장사대회, 슈퍼스타양양 시즌2, 송이밥 시식회, 낙산배 품평회, 일본술 시음회, 38선 돌파 기념행사 등 42개 단위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올해는 기존 행사장이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둔치운동장 주변 주차공간과 체육공간을 활용해 행사장 규모를 확장하고 행사부스 운영시간을 저녁 6시부터 9시로 연장해 야간시간에도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양양연어축제는 설악산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개최해 가을 행락객을 축제 행사장 내로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기존에 2개 공간으로 나누어 진행해온 '연어 맨손잡기 체험'은 올해부터 1개 공간으로 통합 운영해 혼잡을 최소화하고, 관람객들의 편의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평일인 18일과 19일은 하루 2차례, 주말인 20일과 21일은 5차례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맨손잡기체험 외에도 연어 탁본뜨기, 연어열차 생태체험, 연어 장승각기, 범도민 산소길 걷기행사, 달팽이우체국, 샌드아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며, 남대천 한 가운데 위치한 연어섬에서는 버스킹공연이 수시로 진행되어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축제위원회는 사전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전국의 '송이', '연어(연아)'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축제에 초대해 '송이 보물찾기 체험'과 '연어 맨손잡기 체험'을 무료로 제공하는 특별이벤트도 진행하기로 했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담당 033-670-2723

C 양양 모노골 산림욕장 인기, 대형차량 주차공간 확충

속초 외옹치 바다향기로와 연계한 관광코스로 대형차량 방문 증가

양양읍 내곡리 모노골 산림욕장이 인기를 끌면서 외부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군이 인근에 주차공간을 확충하기로 했다.

지난 2010년 조성된 양양읍 내곡리 '모노골 산림욕장'은 양양군청에서 직선거리로 1km 정도에 위치해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등산 및 산책코스로 사랑받고 있다.

완만한 경사의 총 4.8km의 숲길을 따라 의자, 삼림욕대, 데크, 목교 등이 설치돼 있으며, 중간 지점에는 맛이 좋아 예전부터 음용수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모노골 약수터가 위치해 있다.

주 이용객이 지역주민들로 도보로 모노골 산림욕장을 찾는 이들이 많아 주차장을 구축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외부 방문객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차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올해 5월경 수도권 소재 여행사에서 속초 외옹치 바다향기로와 양양 모노골 산림욕장을 연계한 관광 상품으로 탐방객을 모집하면서 각종 산악회 등에서 모노골을 단체로 방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탐방객이 증가하면서 산림욕장 입구인 하이패리스아파트와 향교 주변에 대형차량이 주정차 하고, 탐방객이 도로에서 머무는 등 혼잡이 이어져



안전사고 위험과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은 탐방객들의 출발 및 도착장소로 많이 사용하는 양양향교 주차장을 양양향교 측과의 협의를 통해 약 700㎡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이달 중 현황 측량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산림복지과 산림휴양부서 033-670-2963

C KBS, TV쇼 진품명품 출장 감정 의뢰품 접수

고서화·고서·도자기·민속품 등 고미술품 대상, 9월 10일까지

양양군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KBS 1TV 'TV쇼 진품명품' 출장감정 의뢰품을 접수받는다.

우리군이 KBS 인기프로그램 'TV쇼 진품명품' 출장감정 녹화방송을 오는 9월 11일 문화복지회관 소강당에서 진행함에 따라 녹화 전날인 9월 10일까지 감정 대상 의뢰품을 접수받기로 했다.

개그맨 문용현이 현장MC를 맡아 진행하는 이번 출장감정에는 고서화(그림) 분야 고금관 감정위원과 고서(글씨) 김상환 감정위원, 도자기 김준영 감정위원, 민속품 김경수 감정위원 등이 함께해 지역에서 접수된 의뢰품을 무료 감정한다.

출장감정을 통해 소장하고 있는 고미술품의 가치를 평가받고 싶은 군민은 이달 27일부터 녹화 전날인 9월 10일까지 군청

문화관광과(☎033-670-2225)와 읍면으로 출장감정을 의뢰하면 된다.

접수기간에는 소장품 목록 및 내용만 접수할 예정이며 의뢰품은 감정 당일인 9월 11일 낮 12시 30분까지 녹화장소인 문화복지회관 소강당으로 지참해 가면 된다.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촬영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단, 고미술품 외에 화폐와 우표, 수석, 화석, 불상 등은 해당분야 감정위원이 참석하지 않는 관계로 접수받지 않는다.

한편, 이날 녹화 촬영한 출장감정 양양군편은 오는 10월 28일 KBS 1TV 'TV쇼 진품명품'을 통해 전국에 방영될 예정이다.

문의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033-670-2728



사진으로 보는 양양의 이모저모

1. 운동짱! 영양짱! 지역아동센터 건강교실 활동(8.7)
2. 우리들의 꿈을 키워요~! 드림스타트 잡월드 체험 (8.7)
3. 환영합니다~! 일본 다이센정 중학생 교류연수단 방문(8.7~8.9)
4. 나눴은 바람을 타고~ 한국전력공사 양양지사 냉방물품 지원(8.8)
5. 함께하는 사회~! 청소년 동아리 나눔축제(8.11)
6. 양양을 사천리 사례마을 서각공방 문이 열렸어요(8.21)
7. 제6회 한국쌀전업농 전국회원대회가 열렸어요(8.27~8.29)





제8대 양양군의회 민생현장 방문

양양고등학교 사이클 선수단 위문

양양군의회(의장 고제철)은 지난 2018년 8월 13일 양양고등학교 사이클훈련장을 방문하여 구슬땀을 흘리며 운동하고 있는 양양고등학교 사이클 선수단을 위문하였다. 사이클의 고장 양양이 전국적으로 더욱더 명성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념할 것을 당부하였다.



손양면이장협의회와의 간담회

지난 8월 22일 손양을 생각하는 모임과 이장단 협의회 4명, 이장단 4명, 양양군의회 김의성 의원, 고교연 손양면장을 협업대응팀으로 구성하고자 양양군의회를 방문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른 손양면의 여건, 성장 잠재력, 지원의 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분석을 통해 손양면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구체화 하여 단계적, 체계적, 종합적으로 실현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지역 선도자 중심으로 협력모임을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과 수익을 도모하여 소득을 올리고, 관광개발사업의 성과가 손양면민 발전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효율적·유기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태풍 솔릭 피해우려 현장 점검

양양군의회(의장 고제철) 의원 전원은 지난 8월 24일 태풍 솔릭 피해우려 현장을 점검하였다. 또한 집행부에 피해현황 파악 및 발 빠른 태풍 피해지역에 대한 통제 및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태풍 솔릭에 대응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양양군의회 의정연수 실시

양양군의회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를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충주 수안보에서 실시하였다. 연수 첫날에는 국회의원연수원 임중호 교수로부터 '행정사무감사의 완벽한 준비와 실시', '조례안 심사 및 제정'에 대한 강의를, 둘째날은 한태식 교수로부터 '예산안, 결산을 쉽게 이해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는 전략'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앞으로의 의정활동 준비에 철저를 기하였다. 또한 지역특성화 산업시찰 및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우리 지역과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의원들은 간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지며 제8대 의정활동 위한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양양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angyangcouncil.go.kr/>)에는 익명으로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가능하오니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임시회, 정례회 등 회기가 실시되면 양양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angyangcouncil.go.kr/>)를 통해 실시간 IP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으니 많이 청취해주시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동과 영서를 잇는 양양 구룡령 옛길 걷기

양양에서 영동과 영서를 잇는 구룡령 옛길은 양양군 서면 갈천리에서 홍천군 내면 명개리를 잇는 걸어서 넘는 옛길입니다.

구룡령 옛길 걷기에 도전한 일행들과 함께 홍천 명개리에서 양양 갈천리로 내려오는 길을 걸어보았습니다.

구룡령 정상 고갯마루는 해발 1,013m로 양양과 고성 지방에 살던 옛 주민들이 자동차가 없던 시절 서울을 왕래할 때 이용하던 길로 현재 차량이 운행하는 구룡령 도로가 56번 국도로 개설되면서 도보로 걸었던 옛길은 보행자들이 걸었던 길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구룡령 옛길은 설악산과 점봉산, 오대산 등 백두대간 장벽으로 왕래하기가 어려웠던 길로 양양지역의 영동 사람들과 홍천 지역의 영서 사람들에게 두 지역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했던 길입니다.

양양에서 올라가는 구룡령 옛길은 매우 굴곡이 심하여 마치 용이 구불구불 긴 몸통을 휘저으며 고개를 넘어가는 듯한 모양이라고 해서 구룡령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며, 이름에 관한 다른 전설로는 아홉 마리 용이 고개를 넘어가다 지쳐 갈천리 마을 약수터에서 목을 축이고 다시 넘어갔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 같은 용에 관한 전설과 고개 이름 때문에 옛날 이곳 사람들은 구룡령을 넘으면 등용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양양, 고성 지방 선비들이 합격을 기원하며 즐겨 넘던 길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룡령 옛길 주변의 천연림의 맑은 공기를 직접 가슴속 깊이 마시는 느낌은 아주 상쾌하고 좋았습니다.

산행을 마친 후 비빔냉면으로 배를 채우며 일정을 마무리해봅니다. 선선한 가을 구룡령 옛길을 걸으며 자연을 느껴보세요.



구룡령 옛길 묘반쟁이

반쟁이는 반정에서 나온 말로 구룡령의 아홉 아홉구비 절반 지점이라는 뜻으로 묘가 있는 위치에 붙여진 이름으로 이곳에 있는 묘에 전해지는 전설로 조선시대에 양양과 홍천의 경계를 정할 때 두 지역에서 각자 출발하여 만나는 지점을 경계로 하자는 제안에 따라 양양의 한 청년이 양양 땅을 조금이라도 더 넓히고자 열심히 달리다가 지쳐서 죽었는데 그 공적을 기리고자 이곳에 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더 많은 소식은 양양군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likeyyang> 와 양양군 공식 페이스 <https://www.facebook.com/likeyyangyang> 에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기(이게) 최고자니! '양양 표고버섯'



표고의 은은한 향과 쫄깃한 맛을 즐기다.

예부터 산속의 소고기라 불리우는 표고버섯은 우수한 식감과 함께 향긋한 향을 품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가장 값비싼 버섯이 송이버섯이지만 송이가 없는 중국에서는 표고버섯을 가장 으뜸으로 친다고 한다.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 자연 친화적으로 재배되는 양양표고의 은은한 향과 쫄깃한 식감을 즐겨보자.

'신의음식', '불로장생의 명약' 표고버섯의 효능

고대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은 '신의 음식'이라 했다. 중국에서는 '불로장생의 명약'이라 하였으며, 약 600년 전 중국 명나라 때 오서(吳瑞)라는 사람은 표고의 효능을 "풍치혈파기익(風治血破氣益)"이라 하여 독감이 나 암에 속하는 풍을 다스리는 성분이 있음을 말하였다. 또한 동의 보감에는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고, 전신이 좋아지며 구토와 설사를 멎게 하며 아주 향기롭다고 기록되어 있다. 표고버섯에는 에리다데민이라는 물질은 핏속의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 고혈압 환자들에게도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이다. 또한 식이섬유소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변비를 예방하는데 좋은 식품이며, 칼로리도 높지 않아 다이어트에 좋다. 면역력을 강화시켜 감기등 잔병을 예방해 주기도 한다. 양양 표고버섯은 겨울철 따뜻한 기온과 해풍 등의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갖의 모양이 두껍고 균일하여 도매시장에서도 최고의 등급을 받고 있다.



고기 못지 않은 쫄깃함과 풍부한 감칠맛이 일품! 다채롭게 활용되는 건강식재료!

표고버섯은 양식이 되지 않았다면 송로버섯보다도 더욱 가격이 높았을 거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맛과 향이 뚜렷하고, 밀도가 다른 버섯보다 높아 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버섯 육수를 만드는 데에도 많이 사용되며, 이 외에도 카레, 된장찌개, 김치찌개, 오일 파스타 등에도 많이 사용된다. 표고버섯은 이 외에도 표고버섯밥, 표고버섯 전이나 표고버섯 볶음 등으로 다양하게 만들어진 다.

표고버섯을 햇볕에 직접 말리면 비타민 D가 풍부하며, 진한 향과 쫄깃쫄깃한 맛을 언제든지 즐길 수 있다. 청정양양에서 키운 믿을 수 있는 생표고버섯 및 건표고버섯은 양양물에서 구입가능하다. 또한 9월 28일부터 10월1일까지 열리는 송이축제장을 찾으면 농가상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으며, 표고버섯따기 체험을 신청하면 직접농가에서 표고버섯을 따 볼 수 도 있다. 고기 못지 않은 쫄깃함과 풍부한 감칠맛이 일품인 표고버섯요리로 향기롭고 건강한 가을을 보내보자.

Tip

양양물: www.yangyangmall.co.kr (문의 : 033-670-2704)

· 보관방법 : 생표고버섯은 일주일 이내에 식용할 버섯은 비닐팩에 적당량 넣어서 밀봉하여 냉장보관한다.

장기간 보관하려면 냉동보관을 하거나, 썰어서 완전히 말린 후 냉장 보관을 하면 된다.

“3대 가을버섯 서열을 바꿔 놓은
양양 송이와 송이축제를 기다리며...”



송이를 가장 간편하게 즐길수 있으면서 송이꾼들이 가장 즐겨 먹는 송이라면



송이버섯전골



송이철판볶음밥



양양송이를 모양으로 한 송이빵



1300년 전, 처서가 지나 신선한 바람이 불던 어느 가을날, 신라 33대 성덕왕에게 전국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귀한 진상품들을 올렸다. 그 술한 물품 중에 가장 먼저 맛보기를 기다렸던 음식이 있었으니 무독하며, 맛이 달고 술향이 짙다고 삼국사기에 기록된 송이버섯이었다.

추측컨대, 역대 신라 왕 56명 중에 유일하게 성덕왕에게만 송이버섯을 진상품으로 올리지는 않았을 듯싶다. 앞선 23명의 역대 왕 또한 살아생전, 송이버섯을 진상 받았을 것으로 추측하는데, 해마다 왕의 가을밥상에 여러 버섯 중에서도 유독 '송이버섯'만 끊임은 빠지지 않고 올렸다는 문헌상의 기록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진다.

능이버섯보다 한 수 아래 서열의 송이버섯 진실

뼈 속까지 육식주의자이며 대식이었던, 세종대왕은 진상품으로 올라 온 송이버섯을 명나라 황제 선덕제에게 까지 선물로 보냈으며, 당시 평균 수명의 2배인 83세까지 장수하며 채식주의자였던 영조대왕은 송이버섯을 유독 즐겨 먹었고, 연산군은 귀한 송이버섯을 함부로 채취하지 못하도록 송이산지를 금표(禁標) 지역으로 선포하기도 했다. 송이버섯 사랑은 왕 뿐만 아니라, 사찰에서는 불공의 공양물로 올리기도 하였는데, 송이버섯 맛과 향에 반했던 추사 김정희는 “굴쥔린 창자가 향기로운 맛으로 채우게 되었으니 감사하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토록 송이버섯은 문헌상의 기록으로만 따져도 무려 1300년 동안 그 맛은 물론 향까지도 귀하게 여겨 온 버섯임은 틀림없다.

한방에 일침이구삼약(一鍼二灸三藥)이란 말이 있다. 첫 번째가 침, 두 번째가 뜸, 세 번째가 약이라는 말인데, 가을 3대 버섯을 두고도 “일(一)능이, 이(二)표고, 삼(三)송이”이란 말이 있다. 간혹 “일(一)능이, 이(二)송이, 삼(三)표고”라고도 한다. 그런데 서열을 바꿔 놓아도 '능이버섯'이 '송이버섯'보다 항상 상급의 서열이고 송이버섯은 그 다음이거나 표고버섯 다음의 서열이다. 그토록 예나 지금이나 귀한 대접을 받는 송이버섯이 능이버섯보다 못한 서열을 갖게 된 것은 왜 일까.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할 금쪽같은 양양송이'

송이버섯은 예부터 왕의 진상품으로 나라에서 금표법으로 송이산지를 통제구역으로 설정해 관리 하던 유일한 버섯이었다. 지천이라도 백성들은 임금이 잡는 송이버섯을 함부로 먹을 수도, 먹어서도 안 되는 천명(天命)과도 같은 도리를 조선왕조가 막을 내릴 때까지 권리와 의무처럼 따라야 했으며, 일제강점기 때는 표고버섯과 함께 일본인들한테 수탈까지 당하고, 해방 이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송이버섯을 유별나게 좋아하는 일본으로 값비싸게 전량 수출되기 시작하면서 송이버섯은 누구나 손쉽게 맛볼 수 있었던 대중적 음식재료로 자리 잡기 어려운 귀한 버섯이 되어버렸다. 이튿날 타, 고기를 먹고 체했을 때 달여먹으면 민간요법도 되고, 씹을수록 쫄깃한 고기 맛이 나는 듯 하며, 송이버섯보다 값도 다소 저렴하며 묘한 중독성의 향이 좋은 '능이버섯'이 대중적 음식재료로 자연스레 인기를 얻게 되면서, 오히려 송이버섯보다 서열을 앞에 두게 된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특정 세력에 의한 독점과 소유로 인한 일반 식재료로서의 대중적 활용이 극히 제한적 이었던 것이 이유였던 것이다.

그 명성과 귀한 몸값에 비해 서열의 서러움을 받아오던 송이버섯을 양양송이가 바꿔 놓았다. 지난 2006년, 양양송이가 대한민국 지리적 표시 임산물 제1호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록되면서 송이버섯의 브랜드 가치를 능이버섯보다 한 수 위로 탈바꿈 시켜 놓았다. 여기에 1997년부터 시작한 양양송이축제가 열리게 되면서 임금의 진상품으로 신성불가침 같던 양양송이 또한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할 금쪽같은 가을음식'으로 만인의 미각을 들쭉거리게 되었다. 올해도 그 진귀한 향으로 가득해 질 송이축제가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열린다. 송이라면, 송이칼국수, 송이전골, 송이돌솥밥, 송이빵, 송이핫도그에 이르기까지 양양송이의 맛과 향에 제대로 취할 날만 남았다.

<글·사진 : 강원도의회식자별 대표 함영철>



양양의 9월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설악에 단풍이 물들면 양양의 보물이라는 송이와 연어를 만날 수 있다.

설레는 마음으로 서둘러 길을 떠난다. 송이축제가 열리는 양양으로, 솔잎 향이 가득한 남대천으로...



즐거움이 가득한 특별한 선물, 송이보물찾기

어린이들이 매우 좋아하는 송이보물찾기는 재미와 더불어 송이까지 덤으로 가져 갈 수 있으니 눈에 불을 켜고 송이찾기에 몰두하게 된다. 송이찾기가 어려울 때에는 3가지 방법을 기억하자. 첫째, 나무한 그루에 송이가 하나씩 숨겨져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다른 사람이 이미 송이를 찾아낸 나무 밀이라면 제외하자. 둘째, 솔잎이 얇게 깔린 곳을 공략하자. 주최측에서 송이를 숨길 때 너무 많이 덮어놓으면 누군가 밟을 수도 있고 쉬게 찾을 수 있도록 솔잎을 얇게 덮어놓는다. 그래도 찾을 수 없다면 마지막으로 진행요원들에게 조용히 다가가 질문공세를 해보자. 살짝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소나무 아래서 송이를 발견하면 어른 아이 구분 없이 환호를 지른다. 산속에 퍼지는 송이향과 구수한 송이차를 맛보며 자연과 하나가 되어 본다. 일행들이 찾은 송이의 크기를 서로 비교하며 송이왕을 뽑내보기도 한다. 오늘 찾은 보물 송이는 곱게 포장하여 나를 위한 선물로 챙겨둔다.

또 다른 재미는 표고버섯 재배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체험하는 표고버섯따기 체험이다. 배지에 달린 표고버섯을 아빠와 함께 채취하여 한 바구니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에 재미는 물론 수확의 기쁨까지 느낄 수 있다.



재미있게 구경하고, 신나게 즐기고, 맛있게 먹어보자 양양송이축제 100% 즐기기

남대천 둔치에 자리 잡은 축제행사장은 지역축제답게 시끌벅적하다. 쿵작거리의 공연무대가 흥겹고, 판매코너에는 금방 채취한 송이는 물론 송이를 이용한 저장식품, 가공식품도 판매하느라 소란스럽다. 탁장사체험, 떡메치기 등 양양에 대표마을체험들을 축제장에서 즐길 수 있다. 축제장 내 체험부스와 판매부스들을 구경하다보면 하루가 짧다.

축제장 한쪽에서는 송이로 온갖 요리를 만들며 축제객을 유혹한다. 한우와 송이를 직접구워먹을수 있는 로스구이 코너부터 별미 중 별미인 송이라면까지.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송이칼국수를 맛본다. 술안향이 입 안 가득 퍼진다. 쫄깃한 송이에다가 송이쥬까지 한잔 마시니 오늘이 더할나위 없이 행복하다. 숙소로 정한 송이밸리 자연휴양림도 최근 조성된 자생식물원을 비롯하여 구탄봉, 목재체험, 익사이팅한 하늘나르기까지 다채로운 체험들이 가득하다. 축제장과 송이밸리자연휴양림의 송이관을 오가는 셔틀도 운영되고 있으니 시간을 참고하면 편안한 이동이 가능하다.



■ 양양송이축제 2018

- 기간 : 2018. 9. 28(금)~10.1(월)(4일간)

- 예약 : <https://song-i.yangyang.go.kr>

외국인 송이채취 현장체험

- 일시 : 2018. 9. 26(수) ~ 10. 3(수) 8일간
- 체험시간(9.26. ~ 10. 3. 기간중 2회/일) : 10:30 ~ 12:30, 14:30 ~ 16:30
- 장소 : 송이산지 일원(서면, 손양면, 현북면)
- 참가비 : 1인 30,000원(상품권 3천원 지급)
- 전화접수 : 033-670-2207(전화로만 접수가능)
- ※ 본인이 채취한 송이 중 1송이는 가져갈 수 있음

송이보물찾기

- 일시 : 2018. 9. 28(금) ~ 10. 1(월) 4일간
- 체험시간 : 10:00 ~ 12:00, 14:00 ~ 16:00
- 장소 : 송이산지 일원(서면, 손양면, 현북면)
- 참가비 : 1인 20,000원(상품권 3천원 지급)
- 참가방법 : 인터넷, 현장접수
- ※ 본인이 채취한 송이 중 1송이는 가져갈 수 있음

표고버섯따기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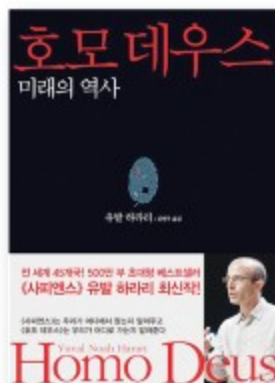
- 일시 : 2018. 9. 28(금) ~ 10. 1(월) 4일간
- 체험시간 : 11:00 ~ 12:00, 15:00 ~ 16:00
- 장소 : 관내 표고버섯 재배단지
- 참가비 : 1인 10,000원(상품권 3천원 지급)
- 참가방법 : 인터넷, 현장접수 예약
- ※ 본인이 채취한 표고버섯 1kg 제공.

책 이야기

“호모 데우스, 이것이 진화의 다음 단계다.”

이 책은 인류의 미래에 대하여 저자가 쓴 일종의 21세기 예언 서입니다. 과거에는 자연의 선택에 따라 생사고락이 결정되는 만큼 자연을 절대적인 존재로 신성시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는 빛과 물 등을 스스로 제어 하며 날씨와 기후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연재해로 불리는 가뭄과 산불, 해일 등에 맞서 댐과 방파제를 쌓으며 자연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는 지구에서 하루 안에 가지 못할 영역은 없으며 그 간격은 계속하여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가침의 영역이었던 인간 존재 자체마저도 과학과 산업의 영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 신화에서 신의 능력이라 여겨졌던, 인간의 상상에 근거한 거의 모든 능력을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자는 ‘호모 사피엔스’를 신이 되는 인류라 표현하여 ‘호모 데우스’라고 칭합니다. 인류는 알고리즘을 통해 인간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마저도 창조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알파고는 바둑에서 어떤 인간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전략을 이용해 이세돌 9단을 꺾었습니다. 머지않아 인공지능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질병을 진단하는 것은 물론,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일까지도 인간보다 더 잘 해낼 것입니다. 인간이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존재로서 순간의 선택과 경험들이 개인의 개성과 가치관, 성격을 만들어낸 것이라면, 인간은 과연 대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막대한 힘을 가지게 된 인류의 종착점은 어떤 형태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과거와 현재로부터 도출해내는 것이 이 책의 목표입니다.

호모 데우스: 미래의 역사 / 유발 하라리 지음 / 김영사 / 2017



더불어 읽으면 좋은[冊]

- 총, 균, 쇠
제러드 다이아몬드 지음, 문학과사상사, 2005
-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지음, 김영사, 2015
- 역사의 역사
유시민 지음, 돌베개, 2018

책 속 밑줄 긋기

『성공은 야망을 낳는다. 인류는 지금까지 이룩한 성취를 딛고 더 과감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전례 없는 수준의 번영, 건강, 평화를 얻은 인류의 다음 목표는,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가치들을 고려할 때, 불멸, 행복, 신성이 될 것이다. 굶주림, 질병,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인 다음에 할 일은 노화와 죽음 그 자체를 극복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극도의 비참함에서 구한 다음에 할 일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짐승 수준의 생존투쟁에서 인류를 건져 올린 다음 할 일은 인류를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데우스’로 바꾸는 것이다.』(p. 39) (양양교육도서관 사서 이순형)

사서가 추천하는 이달의 [신간]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와타나베 준이치 지음 / 다산초당 / 2018

한때 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근무했을 만큼 우리 몸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저자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어느 정도 둔감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감이 예민하고 신경이 곤두선 사람은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격렬하게 반응해서 오랫동안 함께하기 어렵지만 몸과 마음이 둔감한 사람은 물처럼 유연해서 어떤 사람이나 환경을 만나든 부드럽게 어울립니다. 이처럼 잔잔한 바다처럼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다면 몸과 마음의 둔감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플라스틱 병의 모험

엘리스 인차스티 지음 / 보물창고 / 2018

우리 주변에는 비닐봉지부터 플라스틱 병까지 플라스틱 제품들이 가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사람들은 1분마다 플라스틱 병 100만 개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병이 분해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무려 500년임을 감안하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 책은 플라스틱 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재활용되는지 흥미롭게 보여 주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환경보호와 재활용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환경 지침서입니다.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도시과
TEL. 033)670-2289
FAX. 033)670-2303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 여성회관 2층
TEL. 033)670-2890~3
FAX. 033)670-2456

사업장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주)대정지염피 골든비치골프리조트	2명	골프장 코스관리	07:00~18:00 (격주5일)	연2,300만원
	2명	골프장 잔디관리	07:30~17:30	1일 69,000원
해담마을 영농조합법인	2명	HACCP 품질관리 및 총무사무원	08:00~17:00 (주5일)	월180만원
(주)원지	1명	경리사무원	09:00~18:00 (주5일)	월160만원이상
(주)대령레저산업 솔비치	1명	사무나 리카관리원	교대근무	연2,133만원
(주)재성정보통신	3명	통신기기 영업사원	08:30~18:00 (주5일)	연2,400만원
	3명	통신장비 설치·수리원	08:30~18:00 (주5일)	연2,400만원이상
(주)골든에스앤씨	5명	프론트사무원	교대근무	연2,400만원
	4명	플레이드	08:30~18:00	월200만원
(주)한샘개발 낙산비치호텔	1명	미화원	08:00~17:00 (격주5일)	월165만원
강림삼속판넬	1명	배송·납품운전원	07:00~18:00	월230만원이상 (수습기간적용)

사업장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함흥햇집	2명	출서빙원	가을성수기 10.1~11.17.까지 (09:00~21:00)	시급 9,000 이상 (숙식가능)
열르 (양양국제공항호텔 내)	1명	조리원 (투숙객 조식제공)	한달 3회 휴무 (06:00~14:00)	월 180만원 이상
낙산요양원	1명	간호사/ 간호조무사	주 5일근무 (09:00~18:00)	연봉 3,000 만원
디모테오꿈마을 요양원	1명	요양보호사	4조 3교대근무	월 170만원 이상
세영실업	3명	세탁원	주6일 (09:00~18:00)	월 185만원 이상
연어원	5명	포장 및 세척	주5일 (09:00~18:00)	월 157만원 이상

양양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주민 모집

- 기 간: 2018년 10월~12월
- 대상자: 근로가 가능한 양양군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 18세~70세미만
- 급여단가: 38,190원(실비 3,000원포함) 주 5일근무
- 사 업: 재활용품리선별, 영농, 조리, 비누만들기 양봉사업단 등
- 신청문의: 양양지역자활센터(673-4848), 읍·면사무소

▶ 양양군 일자리지원센터와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수시로 구인, 구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이달의 추천 일자리는 2018년 8월 15일 기준 구인정보이며, 업체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2018 양양송이축제 특별프로그램

슈퍼스타 양양 시즌2

본선: 2018. 9.30(일) 14:00
참가신청기간: 2018. 8.27~9.14

나도 가수! 나의 끼를 마음껏 펼쳐보자!
지역인재 발굴을 위한 오디오 프로그램 '슈퍼스타 양양'에
참여하셔서 송이축제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 앞에서
넘치는 끼를 맘껏 선보이며 축제를 함께 즐겨보세요~

신청 및 접수
참가대상 양양군내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양양군에 근무
하거나 주무하는 직장인 및 군인
참가제한 18세 미만 청소년, 장애인, 2017년도 수상생,
가족 행사연락처 부재한 참가자
신청기간 2018. 8. 27 ~ 9. 14
접수장소 양양군청 문화관광과
접수방법 방문 또는 전화 yf8812@korea.kr
구비서류 참가신청서(참가자 정보, 경력, 연령, 성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가족명, 직업, 국적, 무관, 대외연락처 등)
주최 양양군청문화관광과 주관 MBC 양양방송 문의 양양군청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부서 T. 670-2723, 2207

참가자 선발
예선 ~서류 및 영상자료 심사
본선 ~본행사 참가자 발표: 2018. 9. 21(금) 14:00~
일시: 2018. 9. 30(일) 14:00~
장소: 양양 낙산비치 호텔 무대
심사위원 재임 + 현장 문자투표 + 특별가선
~심사위원 구성: 양양군청문화관광과, MBC 양양방송
※가선방법: 송이, 연꽃을 각각 100원씩 투표용지에 표시하여 투표
가선 100원 1표로 실시하며 100원 1표로 가선한다.

시상 및 후원
~우수팀 선정 시양양군청상금 100만원 수여
~최우수팀은 양양축제 본공연 출연

양양군청문화관광과 KDCDC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1. 담배는 반드시 끊습니다

2. 술은 하루에 한 두잔 이하로 음읍니다

3. 음식을 싱겁게 먹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합니다

4. 가능한 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합니다

5.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6.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7.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합니다

8.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을 꾸준히 치료합니다

9. 뇌졸중, 심근경색의 증상을 속지하고 발생 즉시 병원에 갑니다

※ 뇌졸중 초기 증상: 한쪽(마사, 감각)의 갑작스런 마비, 감각이상, 언어장애, 안면마비, 팔다리 마비, 실신 등
※ 심근경색 초기 증상: 가슴의 갑작스런 통증, 호흡곤란, 구역, 구토, 땀, 실신 등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사람 또는 법인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1장의 고지서에 함께 고지 합니다.

〈 과세연도 중 부동산 거래 시 당해 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 〉

.6월 1일 이전에 거래한 경우 → 매수자 / 6월 2일 이후에 거래한 경우 → 매도자

※ 거래시점은 잔금지급일 등 취득의 시기를 의미함

※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는 당해 연도 중 소유권의 변동이 있더라도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

□ 부과대상 및 납부기간

－ 주택분(20만원 초과시 나머지 1/2), 토지분

： 매년 9월(납기 : 9. 16 ~ 9. 30)

□ 납부방법

－ 인터넷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금융기관 공과금 수납기, 가상계좌이체

－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 민원실 신용카드 납부

□ 문 의 :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 033-670-2107, 2148

2018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도내에서 농어업·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 비농어업인 지원불가
- 지원대상 사업
 - 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 다.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 사업당 지원금액 : (개인) 1천만 원~3억 원, (단체) 5천만 원~10억 원
 - ※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 (90% 초과시 지원불가)
- 융자조건 : 연리 1.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사업비 지원신청
 - 가. 접수기간: 2018. 8. 1. ~ 2018. 9. 28.
 - 나. 접수처: 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과, 읍·면·동사무소
 - 다. 제출서류: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1매(소정양식: 접수처 비치)
- 문 의 : 강원도청 농정과 ☎ 033-249-2703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안내

□ '지역사회건강조사'란?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및 시·군·구가 협력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생산을 목적으로 매년 25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 조사대상

－ 조사대상지는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지역의 대표성 있는 가구를 선정 후, 해당 가구의 19세 이상 성인을 조사

－ 지역별 만 19세 이상 성인 평균 900명 조사(전체 23만명)

□ 조사시기

－ 2018년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조사내용

－ 신체계측(키, 몸무게) 및 혈압측정,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손상, 삶의 질, 의료이용 등 조사

□ 조사방법

－ 선정된 가구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 실시

* 조사 완료 후 감사의 마음으로 조

사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 지급

□ 협조사항

－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착용하고 있으며, 사진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오니,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단체 임원선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등으로 쉽고 편리하게 투·개표를 원하십니까?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깬 서비스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입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고 선거관리의 효율성과 투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 때문에 학생회나 기관·단체의 임원을 뽑는 선거, 정책결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건 채택 등 다양한 투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온라인투표시스템(http://www.kvoting.go.kr)을 이용한 투표는 본인 인증을 거쳐 진행되며, 선거제도의 4대원칙과 IT 온라인 투표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기술적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최근 각종 생활주변 선거에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고 싶은 기관이나 단체는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671-1390)로 문의바랍니다.

「찾아가는 운전면허 서비스」일정

- 일 정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월 2회)
(9월 12일 / 10월 10일, 24일 / 11월 14일, 28일 / 12월 12일, 26일)
- 시 간 :오후 2시 ~ 4시(2시간)
- 장 소 : 양양군청 민원실
- 업무내용 : 제1,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면허증 분실 재교부 / 기타 운전면허 행정 업무

전기요금 할인제도 알려드립니다

한국전력은 고객님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다음과 같은 할인제도를 운영중입니다.

□ 전기요금 할인종류

대 상			대상종별	할 인	
				기타계절	여름철(6~8월)
장애인 1~3급			주택용	월16천원	월20천원
유공자	국가	상이 1~3급			
	5.18민주	*			
	독립	본인, 유족인			
기초생활 수급자(주택)			생계, 의료	월16천원	월20천원
			주거, 교육	월10천원	월12천원
			심야(갑) 31.4%, 심야(을) 20%		
차상위계층 수급자			주택용	월8천원	월10천원
			심야(갑)	29.7%	
			심야(을)	18%	
3자녀이상 가구			주택용	30% (월16천원 한도)	
대가족 요금					
출산가구※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3년간					
생명유지장치			주택용	30%할인	
사회복지시설			주택용		
			일반용		
			심야(갑)	31.4%	
			심야(을)	20%	

□ 신청방법

① 한전 고객센터 123 통화 ②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신청 (관리비에 전기요금 포함 아파트 가구) ③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cyber.kepco.co.kr) 신청 ④ 인근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⑤ 인근 한국전력공사 지사 내방

2018년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 신청자격 : 자동차사고로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부모님, 학생이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생활형편기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요건에 적합한 가정 중증후유장애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말함

□ 장학생 선발기준

- ① 특기장학생 : 직전학년도에 교내상 수상자(학교생활기록부의 '수상경력'에 기재)
- ② 성적장학생
 -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 학교장 추천 장학생
 -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1학년 : 직전 학년 성적이 과목별 성취도 평가 등급 평균이 D등급 이내
 - 고등학교 2~3학년 : 직전학년 성적이 석차등급 합의 평균이 7등급 이내

□ 장학금 지원내역 : 초등학교(분기-20만원), 중학생(분기-30만원), 고등학교(분기-40만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기 간 : 2018. 9. 3 ~ 10.31까지
-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방문 또는 우편 신청)
(우편번호 : 24397) 강원도 춘천시 동내로 10 피해지원업무 담당자

□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261-5000

「독감(인플루엔자)예방접종 안내」

1. 무료 예방접종

□ 대상자 : 만 65세이상 노인 (1953.12.31 이전 출생자)

생후6개월~만12세어린이 (2006. 1. 1 ~ 2018. 8.31 출생자)

국가유공자, 1~3급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수급자(만13세이상)

※ 만65세이상 노인, 6개월~만12세어린이는 주소지 상관없이 접종가능

□ 접종기간

- 의료기관(65세이상노인) : '18.10.2(화)~11.15(목)까지(기일엄수)
- 보건소 (65세이상노인) : '18.10.16(화) ~ 백신 소진 시까지
- 의료기관 및 보건소 (생후 6개월 ~ 만12세 어린이)
- '18. 9.11(화) ~ '19.4.30(화)까지(「중앙외과」초등학생만 접종)
- 보건지소, 진료소 : '18.10.16(화) ~ 백신 소진 시까지

□ 접종시간 : 오전 09:00~12:00, 오후 13:00 ~ 17:00

의료기관은 점심시간 파악 후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의료급여카드,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반드시 지참

2. 유료 예방접종

□ 대상자 : 만13세(2007.1.10이후 출생자) ~ 만 64세까지 양양군 주소지를 둔 자

□ 접종기간 : '18.10.30(화)~ 백신소진 시까지

□ 접종시간 :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7:00

□ 접종장소 : 양양군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반드시 지참

□ 접 종 비 : 8,000원

□ 문 의 : 양양군보건소 ☎670-2940/ 670-2540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1월 ~12월

□ 접수기간 : 3분기분 (9. 17~10.31), 읍면사무소신청

- 3분기 달라지는 사항 (방문신청에서 방문, 우편접수로, 제출서류 : 8종에서 3종, 지원신청서 서식변경)- 양양군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지원대상 :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지원조건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가입 원칙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기간 동안 고용유지

-신청일로부터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자를 원칙으로 지원

□ 지원내용 : <정부지원 제외> 사업장 부담분 4대보험료 전액

□ 문 의 : 경제도시과 ☎033) 670-2978

2018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2차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8. 9. 1. ~ 10. 31.

□ 지원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및 전년도 혼인가정으로 무주택자,
아내가 만 44세 이하, 중위소득 200%이하인 가정

□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주소지 읍·면사무소

□ 문 의 : 양양군청 허가민원과 ☎670-2162

송이 사랑만 하고
행복하게 뛰어다녀요!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2018 양양 송이축제

The 22nd Yangyang Song-i Festival

제22회 양양송이축제

2018.09.28 (금)
-10.01 (월)

양양남대천둔치

축제일시 2018. 9. 28(금) ~ 10. 01(월)

축제장소 양양 남대천 둔치 및 양양시장&송이산지

사전인터넷접수 2018년 8월 1일 ~ 9월 21일

참가신청 양양군청 문화관광과 033)670-2207, 2723

주관 양양군축제위원회 주최 양양군

<http://song-i.yangyang.go.kr>



양양군

